



2026 Summer Newsletter 지난 6월 13일에 개최된 '2026년 동창회 야유회'에 귀한 걸음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동문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110명 안팎의 인원이 참여해 주셨는데, 올해는 특히 15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풍성하고 활기찬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동문들께서 맛있는 음식과 흥겨운 빙고게임을 비롯한 여흥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좋았다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준비한 저희로서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다소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으나, 동문 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분발하여, 다음에는 더욱 알차고 좋은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야유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카메라를 들고 동문들의 생생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멋진 사진으로 담아주신 소진문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년 그 무거운 음향 설비를 직접 가지고 오셔서 행사의 흥을 돋우고 매끄러운 진행을 도와주신 김호범 선배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두 분 선배님의 뜨거운 동문회 사랑 덕분에 행사가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소중한 회비와 따뜻한 후원금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정성은 우리 동창회가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큰 주춧돌이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야유회와 골든클럽, 관악클럽 야유회, 제 35차 평의원회 소식을 담아 '2026년 야유회 뉴스레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실행 임원진 드림)

골든클럽 6월의 온기와 7월의 설렘을 잇다. 지난 2026년 6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나일스(Niles)에 위치한 바베큐 가든(BBQ Garden)에서 골든클럽 6월 월례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전현일 회장(농대 62)의 따뜻한 환영과 리드 아래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63명의 회원 및 가족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6월 모임의 하이라이트였던 세미나 <생활의 지혜> 코너에서는 최길용 동문(문리대 57)이 연사로 나서 '은퇴 후의 수학'이라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골든클럽의 활기찬 에너지는 7월에도 계속됩니다.

- 일시: 2026년 7월 2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나일스 바베큐 가든 (BBQ Garden, Niles)

7월에 생일을 맞이하시는 회원님들과 배우자분들을 위한 축하의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생활의 지혜>는 심태식 동문(문리대 69)의 '인생 1막, 2막'입니다. 심태식 동문은 다년간 교회 사역과 전도자로서 헌신하며 쌓아온 깊이 있는 삶의 ▼궤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그동안 다져온 삶의 지혜는 물론,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큰 그림'과 그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에 대해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디자인하고 싶은 모든 회원분들에게 무척 귀하고 영감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진: 소진문 치대 58)





2026 관악클럽 야유회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70/51F, 하늘은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구매한 대형 천막을 설치할 때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아 헤드밴드도 준비했는데, 거의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소는 멀지 않고 가는 길도 단순해, 늦게 도착하는 분도 거의 없었습니다. 공원은 아름다웠고 안전했으며, 자연을 즐기는 많은 캠핑족들로 거의 차 있었습니다. 캠프사이트가 조금 작기는 했지만, 모두 모이기에는 적당했습니다. 사전등록한 32 명이 모두 참석했고 책임을 맡은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역할을 다한 모범적인 야유회였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도 맛있었고,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한민족은 먹는 것에 진심인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먹었습니다.

모든 소모품과 식기, 과일을 준비하신 김동엽 동문이 서빙 담당을 맡아서 동생들에게 정성껏 대접을 하였고, 한국에서 방문하시고 야유회에 참석하신 저의 모친도 편안하고 즐거웠다고 하시고, LA 갈비를 3 조각이나 맛있게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후 20 분을 계획했던 하이킹을 했는데, 모든 인생사가 항상 그렇듯이, 마담 마리 퀴리와 같은 전공을 한 리더를 만나 40 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문득, '학교에서 화학실험이 잡혀있는 날은 데이트 약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 두 분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북조선 지도자와 동명이인인 한 분을 제외하고, 남녀노소 총 27 명이 참여한 하이킹은 결과적으로, '아! 우리도 같이 무언가 해냈다' 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준 어제 행사의 백미가 되었습니다. 애들은 낚시하러가고, 우리끼리 신나게 얘기하다가 잠깐 시간을 내어 올해 12 월 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았는데, 락 카페, 가라오케, 단체캠핑, 커뮤니티 회관 대여, 볼링, 스크린 골프 등등의 의견이 있었고, 에어비엔비 렌트가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들 축구경기로 인해 불참한 채영광 동문과 개인일정으로 관계로 아쉬움의 뜻을 전해오신 이소정 동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동문회의 기동 정성일 동문과 부인 세실리아씨, 대들보 김훈태 동문과 남편만큼 존재감이 큰 부인 신실씨의 부재도 큰 아픔이었습니다. 유선상으로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부인들의 한국방문으로 인해 외롭고 쓸쓸하게 도착한 두 부회장 이태호, 홍승우 동문을 접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제가 하이킹하는 내내 위로했습니다. 부인들은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입니다. (2026 관악클럽 회장 황찬주 인문 84)

2024 - 2026 선출 이사 : 25 명

곽영로(수), 김선웅(공), 김승주(간), 김영호(의), 김용주(공), 김정주(문), 김준우(의), 김학수(공),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장열(공), 유기정(간), 이승자(사), 이종일(의), 이준수(공), 이태호(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최길용(문), 최희수(문), 한의일(공), 홍승우(사회), 홍청일(약),

2025 - 2027 선출 이사 : 28 명

김사직(상), 김수현(생), 김연화(음), 김영준(문), 김용성(상), 김윤태(의), 김호범(상), 문병훈(사), 박계영(의), 박동수(문), 박숙(의), 박연희(보), 소진문(치), 신순천(원), 안인숙(간), 연경자(약), 이경미(미), 이동균(공), 이성우(농), 이용락(공), 이정일(농), 장영수(공), 정호(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조중행(의), 한경진(상), 한재은(의),

2026 - 2028 선출 이사 : 26 명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영자(간), 김용환(공), 김윤하(공), 김재환(사), 김훈태(사회), 박영규(농),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안창혁(사), 왕진한(공), 윤덕상(치),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병주(상), 이영우(문), 이창호(공), 장윤일(공), 지우영(공),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문), 황치룡(문),

2026 년도 임원진: 회장 이동균(공대 75), 수석부회장 윤봉수(간호 69), 부회장 이준수(공대 76), 황찬주(문 84), 총무 봉윤식 (사회대 96) 재무 형준호 (공대 85), 섭외/홍보 황찬주 (인문대 84), News Letter 이준수(공대 76), 봉윤식 (사회 96), Web Master 황찬주 (인문대 84), 골프 소진문 (치대 58), 김훈태(사회 84), 사진 소진문 (치대 58), 홍청일 (약대 57), 특별간사 김수현 (생활대 98), 이소정(음대 84), 김훈태(사회 84), 감사 김영호(의대 71), 신순천 (자연대학원 89) 동아리모임, 음악: 이영우(문리대 66), 스와재: 황찬주(인문대 84), 독서: 박종희(의대 69), 특별고문 정성일 (공대 86), Golden Club 회장: 전현일 (농대 62), 관악 클럽 회장: 황찬주 (문리대 84), 장학금 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의일(공대 62), 고문 역대회장



(이준식 서울대총동창회장, 황효숙 미주동창회장과 함께한 시카고지부)

35 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참관기

2026년 6월 26일부터 개최된 제 35차 미주동창회 평의원회는 북미 전역에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의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미주 각 지부에서 참석한 동문들은 오랜만의 재회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평의원회는 과거의 행사들과 차별화되는 뚜렷한 전환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첫날 주로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동창회의 핵심 사업인 'SNUAA USA 장학금 수여식'을 첫날 메인 행사로 전면 배치함으로써 평의원회 전체의 격조와 의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미국 국세청(IRS)에 자선단체(501(C)(3))로 등록되어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공익적 성격의 조직인 만큼 미주 전역의 지부 대표들과 지도부가 집결하는 평의원 총회 공식 일정 중에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한 것은 제도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행사 첫날인 6월 26일 금요일 저녁, 환영만찬에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장학금 수여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임동근(농대 14) 총무국장과 최화진(음대 85) 장학위원회 위원의 매끄럽고 품격 있는 사회로 진행된 이번 수여식은, 미주동창회의 장학 사업이 얼마나 깊은 내실을 갖추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미국 전역의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장학생들은 공학, 자연과학, 리더십, 수자원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인재들입니다. 특히 선배 동문들의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SAMICK, 김권식&김성숙, 한-백, 이&노, 고광국&고국화, 이경애, 황효숙)과 더불어 미주동창회가 지원하는 장학 기금은, 미국 땅에서 성공을 일구어낸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수여식장에 참석한 평의원들은 지성의 요람에서 자라나는 후배들의 당찬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자부심과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제 35차 장학 사업이 더욱 빛났던 이유는 장학금 지급이라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배들에게 모국과의 유대를 심어주는 거시적 프로젝트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발된 우수한 장학생들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서울대 국제학계강좌 (ISP)'에 직접 참여하면서 서울에서 줌(ZOOM)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당찬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울러 지명장학금을 기부한 선배들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받은 후배들에게 한국을 통하여 모국의 문화와 지성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고 넓은 시야를 갖추고 돌아오기를 따뜻하게 당부하는 절차도 있어 더욱 뜻깊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학생들은 서울대 캠퍼스에서 세계의 인재들과 교류하고 모국의 진면목을 발견하며, 뚜렷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슴에 품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인 6월 27일에는 황효숙 미주동창회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평의원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를 돌아보는 제 34차 평의원회 회의록 승인이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이어서 동창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신년도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이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장학-IT 위원회 보고와 회칙위원회 보고 등이 짜임새 있게 이어지며 조직의 제도적·재정적 준비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회의를 마친 저녁 시간에는 이경선(음대 84) 교수와 이소정(음대 84) 교수의 특별 음악회가 열려 참가자들에게 깊은 예술적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퍼드 대학 이진형(공대 95) 교수의 'AI와 뇌 건강의 미래' 기조연설은 첨단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서울대인의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35차 평의원회는 미주동창회가 자선단체로서의 투명성을 대내외에 공고히 하고, 장학 사업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구체적인 비전을 수립한 뜻깊은 회의였습니다. 첫날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10명의 장학생들이 보여준 맑은 눈빛과 선배 동문들의 따뜻한 격려는 우리 시카고지부 평의원들에게도 깊은 도전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글, 사진: 이준수 공대 76)

2026 임원회/이사회/총회 행사		산하기관 및 동아리 행사
1 월	17 일(토) 11:00 ~ 인수인계 (Bank Account Transfer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든클럽(전현일) • 관악클럽(황찬주) • 음악동우회(이영우) • 스와재 (황찬주) • 산행 (봉윤식) • 북클럽 (박종희)
2 월	14 일(토) 17:00 ~ 실행임원회의 22 일(일) 위임장(Proxy) 송부 (이사 위임장 및 회비)	
3 월	21 일(토) 12:15 ~ 1 차 이사회 - At Chandler (Schaumburg Golf)	
5 월	03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09 일(토) 12:00 ~ 춘계 골프대회 (Hilldale GC)	
6 월	06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야유회 준비) 13 일(토) 11:30 ~ 야유회 - Busse Woods #4 26-29 일: 미주 총동창회 35 차 평의원 회의 - Radisson Blu Mall of America, Minneapolis, MN	
7 월	10 일(금) 장학생 선발 공시 19 일(일) 음악동우회 Ravinia Festival	
8 월	30 일(토) 장학생 접수 완료 16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골프 행사준비)	
9 월	05 일(토) 12:00 추계 골프대회 (Hilldale GC) (예약 완료) 20 일(일) 장학생 선발위원 모임 및 선발완료 27 일(일) 17:00 ~ 실행임원회의 (2 차 이사회준비)	
10 월	25 일(일) 16:00 ~가을음악회 겸 2 차 이사회 (예약 완료) - 한인 문화원	미주동창회 홈페이지 www.snuaa.org
11 월	29 일(일) ~ 실행임원회의 (총회 준비)	
12 월	06 일(일) 16:00 ~ 총회 및 송년파티 - Chandler (Schaumburg Golf) (예약 완료)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6 년 이사회비 납부 (57 명)

곽영로(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자(간), 김영호(의),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정주(문), 김학수(공), 김호범(상), 김현희(간), 노영일(의), 박영준(문), 박계영 (의), 박숙(의), 박연희(보),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소진문(치), 신순천(원), 안창혁(사), 왕진한(공), 유기정(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준수(공), 이태호(공), 이병주(상), 이성우(농), 이영우(문), 이종일(의), 이승자(사), 장윤일(공), 조규승(문), 조대현(공), 지우영(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중행(의), 최길용(문), 한의일(공), 한경진(상), 한재은(의),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찬주(인문), 황치룡(문), 홍청일(약)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6 년 동창회비 납부 (78 명)

곽영로(수), 구행서(공), 김규호(의), 김동희(공), 김병윤(문), 김사직(상), 김승주(간), 김영원(사), 김영자(간), 김영호(의), 김옥자(간), 김용성(상), 김용주(공), 김용환(공), 김윤태(의), 김윤하(공), 김준우(의), 김정수(문), 김정주(문), 김학수(공), 김호범(상), 김현희(간), 노영일(의), 노재원(인문), 박명기(농), 박영준(문), 박계영 (의), 박숙(의), 박연희(보), 박종희(의), 박창만(공), 백준철(공), 서상헌(의), 신석균(문), 소진문(치), 신순천(원), 심태식(문), 안창혁(사), 왕진한(공), 원인숙(간), 유기정(간), 윤봉수(간), 이건정(공), 이동균(공), 이준수(공), 이태호(공), 이병주(상), 이성우(농), 이영섭(수), 이영우(문), 이소정(음), 이종일(의), 이승자(사), 장기남(문), 장윤일(공), 정영자(간), 정해일(상), 제한수(사), 조규승(문), 조대현(공), 지예자(미), 지우영(공), 전현일(농), 정성일(공), 정승규(공), 조중행(의), 최길용(문), 한의일(공), 한경진(상), 한재은(의), 허서룡(의) 형준호(공), 홍하웅(자), 홍혜례(사), 황선욱(간), 황찬주(인문), 황치룡(문), 홍청일(약)

서울대학교 시카고 지역 동창회 2026 년 일반경비 및 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3,400): 김동희(\$1,000), 김윤태(\$300), 이용락(\$1000), 한재은(\$100), 유기천 재단(\$1,000),
일반경비 지원 (\$10,400): 김동희(\$1000), 김윤하(\$300), 윤봉수(\$300), 이건정(\$100), 장윤일(\$2000), 제한수(\$50), 조규승(\$2000), 지우영(\$1000), 정승규(\$500), 한의일(\$2000), 한경진(\$1000), 한재은(\$100), 허서룡(\$50)
2026 년 부교: 구경희(의 59E) 서승환(치 57E) 김성범 (상 50E) 송재현(의 46E) 이용락(공 48E) 박신영(음 06)